

20억 넘게 쏟아부어 명품거리 조성 추진했는데... 보도블록 만신창이 자동차에 짓눌려 '너덜길' 된 충장로

상품운반차 제외 통행금지 불구
무분별 차량통행 단속 안돼
특하면 땀질 보수... 시민 불편

광주 동구청 직원 3명은 6일 충장로 2가 갤러리존 앞에서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했다. 충장로를 오가는 차량들로 인해 부서지거나 떨어져 나간 보도블록을 매일 '땀질' 보수는 게 이들의 업무다. 이들 3명은 2012년부터 충장로·금남로·황금로 일대를 돌며 보도블록 보수 공사만 전담한다. 이들은 "매년 3~11월까지 공휴일과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돌면서 떨어져나간 보도블록 보수 공사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멘트 비용만 한 달 15만원.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상품운반 차량의 이동 등을 감안해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게 이들 하소연이다.

광주시 동구가 '충장로 활성화'를 통한 특색있는 명품거리 조성을 내걸고 추진했던 충장로 일대 보도가 만신창이가 됐다.

19억을 들인 포장공사를 모두 뜯어내는 재시공까지 강행했음에도, 애초 기대했던 '특색있는 명품거리'는 커녕, 망가지고 훼손돼 걷기 불편한 '보도'가 된 지 오래다. 차량통행금지구역이지만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차량 통행을 주범으로 꼽으면서도 주민 민원을 우려한 '눈치보기 행정' 탓에 매일 땀질 보수에만 그치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6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잦은 차량 통행으로 충장로 일대에 뒤덮인 바닥재가 망가지고 훼손되면서 보행자 불편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우체국 4거리의 경우 바닥재가 떨어져 나가 움푹 패어있는 게 하면, 모서리가 볼록 튀어나온 바닥재도 적지 않아 자칫 보행자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6일 오후 수많은 인파가 몰린 광주시 동구 충장로 1~3가 일대. 차량통행이 금지돼 있지만 차량 한 대가 버티기 보행자들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충장로 2가 갤러리 존과 유니클로 앞 보도 상태는 더 심각하다. 충장로 2가(길이 150m·폭6m)의 50m 가량은 아예 바닥재로 쓰인 화강석 블록(20cm×20cm)이 어긋나면서 움푹 패어 구덩이가 생기는 등 흉칙하게 변했다. 제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 나뉘는 보도블록만 수십여개에 달한다.

광주우체국에서 광주전 방향 보도 50m 구간도 바닥 포장재가 떨어져 나갔고 곳곳이 함몰돼 있는 실정이다. 비라도 오면 물 웅덩이가 생길 정도다.

동구가 지난 2007년 19억원의 추가 예산까지 감수, 화강석으로 거리 포장을 단행한 '충장로 특화 거리 조성'이라는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다.

동구는 보도 훼손 주범으로 무분별한 차량 통행을 꼽고 있다. 시민들 보행만으로

는 보도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화강석이 바닥에서 분리되거나 귀퉁이가 떨어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 곳이 훼손되면 주변 화강석까지 함께 분리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일대(충장로 1~3가)는 도로교통법(6조)상 차량통행 금지구역이다. 다만, 입주 상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밤 11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2시간 상품운반차량에 대해서만 차량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 경찰이 뺨히 지켜보는데도, 차량이 진입하는 등 적극적인 통행 제한이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지 오래다. 동부경찰측은 "큰 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 보행자 통행이 많은 충장로까지 단속하기

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변변한 주차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품운반 수레 등의 조치 대신, 상품운반 차량에 대한 조건부 통행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지역민들은 당국의 확고한 정책 판단 없는, 소극적 행정이 '명품 거리' 조성 취지도, '상가 활성화'라는 목적도 성공하지 못한 예산 낭비를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충장로 1~3가 거리 일대는 지난 2006년 12월21일부터 2007년 8월29일까지 광주시와 동구의 '충장로 특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억을 넘게 투입, 총 길이 747m(폭7~8m)의 거리에 포장공사를 진행했다. /이종행기자 golee@/박기웅 수습기자 pboxer@

군부대·의경 가혹행위 '고질병'

육설·폭언에 알몸 얼차려 등 성적 수치심도

31사단·전남경찰서도 발생

육군 28사단 선임병들의 지속적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23) 일병 사망 사건 같은 가혹행위는 군대 뿐만 아니라 군 복무를 대체하는 의무경찰 사이에서도 매년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군(軍), 경찰 모두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을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계기로 대대적인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실정이다.

5일 육군 제31보병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 장흥 초소에서 근무 중 총기 사고로 숨진 김모 일병의 경우 선임병의 엄기 강요·육설·질책·폭언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측은 당시 해당 선임병 2명의 가혹행위를 확인, 형사처벌하는 한편, 소초장·중대장·대대장 등 상관 4명에 대해 지휘 책임을 물어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었다.

전남청의 경우 ▲2011년 7건 ▲2012년 6건 등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전남청 산하 611 전경부대 소속 선임 전경 25명의 가혹행위 사건 이후 대대적 근절 대책을 내놓은 이후 또다시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당시 근절 방안이 '허구'라는 비판도 높았다.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생색내기식 대책'이 아닌, 부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이유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빛원전 정비실에서

협력사 직원 숨진 채 발견

6일 오전 9시23분께 영광군 흥농을 한 빛원전의 한 정비실에서 협력회사 직원 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외부 출입 흔적 등 타살 정황이 없는 점에 미뤄 조씨가 프라운 가스에 관을 연결한 채 숨져 있었다. 발전소 정비업무를 책임지는 한전

KPS 소속 정비사인 조씨는 전날 밤 회식을 마치고 회사 인근 집으로 들어갔다

가 이날 밤 10시50분께 홀로 정비실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는 출근시간이 지났는데도 조씨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자 회사 정비실로 가 숨져있는 조씨를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외부 출입 흔적 등 타살 정황이 없는 점에 미뤄 조씨가 프라운 가스를 흡입,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시동 걸린 차량 훔쳐 완도 피서 떠난 '간 큰 고교생' 3명 탈피



○...고등학생들이 광주시 남구 한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훔쳐 타고 완도까지 피서를 갔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탈피.

○...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장모(16)군 등 고교생 3명은 지난 4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의 모야파트 앞 길에 시동이 걸린 채로 세워져 있

던 김모(30)씨의 차량을 훔쳐 완도까지 여행을 떠났다는 것.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카드가 완도의 한 편의점에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완도의 한 주차장에서 이들을 붙잡았는데, 경찰에서 장군 등은 "친구랑 피서를 가기위해 모였는데 하필 시동이 걸린 차량이 우리 눈 앞에 나타났다"며 때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

아동 실종 막자는데...신경도 안쓰는 지자체들

다중시설 '실종예방지침' 지난달 시행 불구 현황 파악도 안돼

정부가 지난달 29일 다중이용시설 내 실종된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시행한 '실종 예방지침'이 겹돌고 있다.

담당기관인 광주시, 각 구청과 경찰청은 시설 현황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해당 업체조차 포함 여부를 몰라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신고되는 경우 즉시 경보를 발령

하고 출입구 통제·감시·수색·경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시설은 ▲전체면적 1만㎡이상 대규모 점포·유흥시설·박물관 및 미술관·지역축제장·도시철도역사·버스·공항터미널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 등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동구의 경우 롯데백화점 등 5곳,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 10곳, 남구 이마트봉선점 1곳,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등 5곳, 광산구 광

주공향 등 3곳 등 총 24곳을 대상 시설로 파악했다.

반면, 각 구청은 경찰청과 다른 시설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시행 초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광산구의 경우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설 현황조사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구도 법 시행 뒤인 지난 1일에 해당 시설(14곳)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을 뿐이다. 광주시도 지난달 28일에 복지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일선 구청에는 관련 법 시행 뒤인 31일에 통보, 해당 시설을 상대로 한 충분한 안내 기간이 부족했

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도 24개 대상 시설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발송하고 직접 방문, 홍보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지만 시설 종사자들에게 일일이 안내하기는 벅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연 1회 시설 종사자에게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고 경찰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때에도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백희준 수습기자 bhj@

(주)오천경매 / (주)오천개발

대표, 최선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시 동구 찬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투자 가능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2대1 또는 1대1 투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 설정으로 보장
연 10~24% 매월 지급
투자기간은 1년 정도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